Daishin 증권

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Morning Meeting Brief

Strategy

[퀀틴전시 플랜] 휴전 기대 속 유가 민감도 지속, 기관 순매수에 5,640선 지지

- 미국, 이란 휴전 기대감으로 유가 하락 & 증시 상승
- 완화적 발언과 군사 대응의 엇갈림이 남긴 경계심, 장 중 상승폭 축소
- 기관 투자자의 대형주 중심 순매수로 대부분 업종 강세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y

휴전 기대 속 유가 민감도 지속, 기관 순매수에 5,640선 지지

Strategist Jr. 정해창
haechang.chung@daishin.com

Strategist 이경민
kyoungmin.lee@daishin.com

- 미국, 이란 휴전 기대감으로 유가 하락 & 증시 상승
- 완화적 발언과 군사 대응의 엇갈림이 남긴 경계심, 장 중 상승폭 축소
- 기관 투자자의 대형주 중심 순매수로 대부분 업종 강세

미국, 이란 휴전 기대감으로 유가 하락 & 증시 상승

이스라엘 매체는 소식통 3명을 인용해, 미국이 이란에 한 달간의 휴전과 그 기간 중 15개 사안에 대한 협상을 제안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보도. 미국은 15개 계획을 파키스탄을 통해 이란에 전달했고, 이스라엘과도 관련 내용을 공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 측으로부터 매우 큰 선물을 받았다고 언급했으며, 이는 석유, 가스와 관련된 것이라고 설명

미국과 이란의 협상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중동 리스크 완화 기대감이 국제유가에 반영되며 급락. 국내 증시는 이를 호재로 인식해 상승 출발

완화적 발언과 군사 대응의 엇갈림이 남긴 경계심, 장 중 상승폭 축소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적 발언과 달리, 미국의 실제 대응은 오히려 강경한 모습. 트럼프 대통령은 82공수사단 병력 1,000명의 중동 투입을 승인했으며, 수일 내 배치 가능성도 제기

완화적 발언과 군사적 대응이 병존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여전히 해소되지 못함. 여기에 이란 중앙사령부가 타협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발표한 점 역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나타냄

휴전 관련 소식에 급락했던 유가도 반등. 국내 증시는 유가 흐름에 연동되는 모습으로 장 중 상승폭을 축소했으며, 이는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히 남아 있음을 시사

외국인 투자자는 오전장에서 순매수했지만, 오후장에서 1.2조원대 순매도 전환. 달러-원 환율은 1,500원 대로 상승. 국내 증시는 기관의 2.3조원대 순매수 확대로 5,640선을 지켜내며 상승r

기관 투자자의 대형주 중심 순매수로 대부분 업종 강세

방산: LIG넥스원(14.5%), 한화시스템(+7.3%), 현대로템(+7.2%)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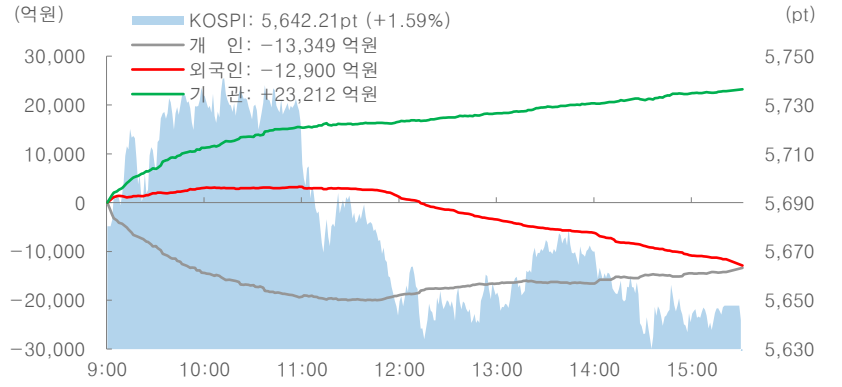
증권: 미래에셋증권(+10.2%), 키움증권(+8.0%), NH투자증권(+4.1%) 등

원전/전력기기: DL이앤씨(+14.9%), 효성중공업(+10.7%), 현대건설(+5.3%) 등

특징주: 엘앤에프(+16.2%): 삼성SDI와 1.6조원 규모 LFP 양극재 공급계약

두산(+8.6%): CCL 설비투자 확대에 따른 매출 성장 기대감

KOSPI 투자주체별 수급 및 장중흐름



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 Compliance Notice

- ✓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 Research Center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 얻어진 것이나 정확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 자료 작성일 현재 본 자료에 관련하여 위 애널리스트는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 ✓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였습니다.
- ✓ 동 자료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